



실패한 멕시코 외교정책, 대통령 이념에 따라 결정

멕시코 외교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좌파적 이념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다" 면서 '실패한 외교' 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자신의 좌파 이념적 이익과 연계함으로써 멕시코 외교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8년 12월 취임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의 외교 정책을 자신의 이념적 선호에 따라 결정했으며, '불간섭' 을 주장하면서도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좌파 집권 대통령들이 저지른 인권, 자유, 민주주의 침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들 국가는 좌편향인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우호적인 좌파 정권이 통치하고 있다는 공통점



이 있다. 반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우파 또는 중도 우파 정부에 대해서는 '외국가에 대해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지론과 달리 비판과 공격을 주저하지 않았다.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되어 법적 승계 절차를 밟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의해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 받지 못했다. 부패혐의로 쫓겨난 좌파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을 비판했다. 쫓겨난 前 대통령의 가족을 멕시코로 초청해 거주처를 마련해 준 것은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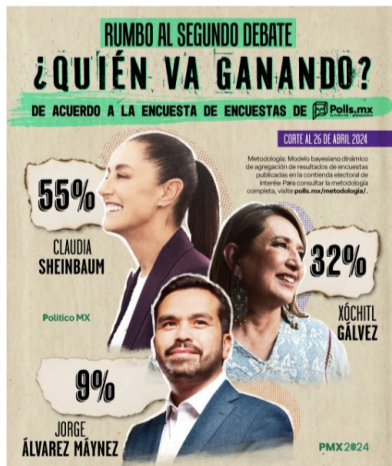
이달 3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3년 에바도르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의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역시 타국가에 대해 '불간섭' 이라는 이유를 대지 않고 적극적인 '간섭'에 나서면서 '재앙' 과 같은 결과를 빚은 경우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2023년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을 때,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불간섭' 을 넘어 그를 '보수적 파초(보수주의자)'라고 비아냥 거렸다.

자신과 같은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독재정권이든,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권이든 상관없이 '불간섭'을 주장하면서 침묵하지만,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틈만나면 비판과 시비를 걸면서 멕시코 외교 정책의 모순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대선에서 현 여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좌파적 이념 계승은 이루어 지겠지만 분명한 '독자노선'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정책에 있어서는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표로 보는 멕시코 대선/총선) 1. 박스권에 갇혀 있는 야당후보, 당선과 멀어지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 대선에 여당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을 기대하는 야당 지지세력의 희망을 꺾고 있다.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는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좀처럼 탈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현재의 야당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야3당이 합쳐서 단일후보를 내세웠지만 여당후보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작년 11월 첫 여론조사에서도 쉐인바움은 57%, 소칠은 31% 야당이 오차범위 밖인 30%대의

지지율이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여당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후보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여론조사의 수치로는 사실상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 집권당의 재집권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6.54	살 때	1,415
팔 때	17.47	팔 때	1,366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여당 주도로 행정사면법 통과, "흉악범도 대통령 사면권에 포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여당 주도로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임기말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까지 절대 권한을 쥐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대통령 사면권'은 그동안 정치범에 국한되어 주어진 권한에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범죄자, 심지어 심각한 범죄자라도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범위가 거의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하원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면법 개정안은 단 한 번의 투표도

없이 통과되어 연방 관보에 게재되도록 행정부에 이관되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전체 회의에 부쳐진 새로운 사면법은 집권당인 Morena를 중심으로 그동안 여당과 보조를 맞춰온 PT(노동당) 및 녹색당(PVEM)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요 야3당인 PRI, PAN, PRD 및 M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찬성 250표, 반대 197표였다.

투표전 대표발의에서 여당의원들은 대통령이 범죄자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면법

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특별토론회에서 총 71건의 유보사항과 회의록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사면법 개정에 따라 현 대통령이 나 차기 대통령은 범죄에 책임이 있는 범죄자, 심지어 마약 카르텔, 살인자, 여성살해자, 납치범 등 심각한 범죄라도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면 석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쉽게 말해서, 흉악 범죄자라도 정부, 여당에 협조하여 사건 진실

에 협조할 경우 사면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현 정부의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수감중인 일부 흉악범 중에는 전 정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석방시켜 양심선언을 통해 이전 정부의 책임자를 색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권세력의 '일방적 입법독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표로 보는 멕시코 대선/총선) 2. 시티 시장은 누가 유력한가?

대선후보에서 여당이 독주체재라면 멕시코시티 시장선거는 야당후보의 선전으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오차범위내에서 엇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서 남은 한 달간의 기간동안 누가 더 유권자에 호소력 짙은 정책으로 다가서느냐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선후보의 여당 독주에 견제심리가 작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야당후보에 힘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다만, 대통령

제이지만 부통령 직책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대선때면 여당후보와 멕시코시티 시장이 런닝메이트 처럼 선거운동에 나서지만 이번 경우는 여당후보와 여당 시티시장 후보간 알력이 상당해 쪼그러운 관계라는 점이 야당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여론 조사상 야당이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전국 9개 지역 주지사도 이번 총선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4월말 기준)

1. CHIAPAS주 - Eduardo Ramirez (MORENA, PT, Verde) 61% 선두
2. GUANAJUATO주 - Libia Denisse Garcia Munos Ledo (PRI, PAN, PRD) 51% 선두
3. JALISCO주 - Jesus Pablo Lemus Navarro (Movimiento Ciudadano) 47% 선두
4. CDMX - Clara Brugada (MORENA, T, Verde) 53% 선두
5. MORELOS - Margarita Gonzalez Saravia (MORENA,

PT, Verde) 48% 선두

6. PUEBLA - Alejandro Armienta Mier (MORENA, PT, Verde) 59% 선두
7. TABASCO - Javier May Rodriguez (MORENA, PT, Verde) 58% 선두
8. VERACRUZ - Norma Rocio Nahle Garcia (MORENA, PT, Verde) 51% 선두
9. YUCATAN - Renan Alberto Barrera Concha (PRI, PAN) 48% 선두. 전체적으로 여당 6곳, 야당은 3곳에서 선두다.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연자

멕시코에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유자금으로 투자 또는 저축 보험에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새로운 투자 펀드에 투자, 고수익
- 프랜차이즈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시 혜택
- 노후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은퇴를 위해 사용
-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 집을 구매 할 때 지원
-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경비 지원 혜택
- Allianz Mexico의 옵티막스 상품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begj@bgjtuasesorseguro.com
bernardoegj@begjtuasesorseguro.com.mx
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
전화: 56-2802-8481 담당: Bernardo Gonzales Jimenez



멕시코 야당, 前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소송 제기

멕시코 야당이 前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에 나서면서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극단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PAN과 PRI 소속 상원의원들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판사들에게 연방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자원을 유용하고 협력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은폐한 혐의로 은퇴한 아르투로 잘디바르(Arturo Zaldivar) 前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 요청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서명자 중에는 국민 행동당의 Kenia Lopez, Lilly Tellez, Gina Cruz, Alejandra Reynoso 및 Guadalupe Saldana와 PRI Manuel Anorve, Claudia Anaya y Mario Zamora의원이 동참했다.

이 문서는 하원의원회의의 사무총장 Graciela Baez에게 전달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잘디바르 대법원장이 대법원(SCJN) 및 연방사



법위원회(CJF) 의장 재임 기간 동안 행한 행위와 그의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면 제출에 따르면, 고발된 사실은 C. Arturo Zaldivar Lelo de Larrea 전 대법원장이 공공의 이익에 해로운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멕시코 정치 헌법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rturo Fernando Zaldivar에 대해 "더이상 공직을 맡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재제를 가해야 한다"고 상원의원들은

주장했다.

특히, 야당 상원의원들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오전 국립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은 "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반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정중하게 개입할 것"이라면서 주요 사건마다 현 정부는 전 대법원장과 물밑 대화를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 바 있다. 즉,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했다는 의미로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것이다.

前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최근 익명의 고발장이 대법원에 접수되면서 크게 확대 되었는데 고발장에 따르면, 그는 각종 사건에 대해 압력을 넣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현 대법원장은 공식 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전 대법원장은 즉각, 현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현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든 법적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대통령을 비롯, 현 여당 대선 후보인 웨인바움도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현 대법원장을 하차시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rturo Fernando Zaldivar 前 대법원장은 퇴임 후 곧바로 여당 대선후보인 웨인바움 선대본부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현 대법원장은 상대적으로 야권 성향이어서 야3당 후보인 소칠 갈베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야당을 지지하는 현 대법원장이 여당에 합류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지시는 여권에 대한 흠집내기로 여권은 법무부까지 동원하여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멕시코 대통령은 '절대 존엄(?)',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이었던 엔리케 페냐 니에토 前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현재 외국(스페인)에 머물며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정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다.

이를 두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했는지, 즉 어떤 회사에서도 일하지 말고 닦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멕시코 정치 평론가는 말한다.

前 대통령은 현 집권당에 대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댓가(?)로 현 대통령은 그를 평화롭게 떠나보냈다는 것이다.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은 전임자에 대한 모든 과일을 개인적으로 비활성화했고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해 부패의 화신으로 날선 비판을 일삼았던 현 대통령도 페냐 니에토 정부 6년에 대해서는 건너 뛰고 칼데론(Calderon), 폭스(Fox), 세딜로(Zedillo) 前 대통령, 심지어 훨씬 이전 대통령인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Salinas de Gortari)에 대해서만 공격을 퍼붓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아침 회견 때마다 전직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왔다.

그는 칼데론과 폭스 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개인 트위터 활동을 비난하고, 살리나스 전 대통령에 대해 물밑 정경유착 의혹을 비난했으며, 세딜로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인지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정치에 관



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적 이슈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고, 직업을 갖지 않았다.

Pena Nieto가 침묵을 깨는 저널리스트 Mario Maldonado의 최신 유행 책인 "망명으로부터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행정부

Obrador) 대통령은 마이크를 빼앗고 "Pena Nieto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그는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즉각, 조사는 중단되었고 금융정보부 수장은 납작 엎드렸다.

특히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에 대해 단 한 번의 비판도 하지 않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매우 외롭게 스페인과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를 오가면서 골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독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딱 한번, 현 정부가 페냐 니에토에 대해 무언가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금융정보부(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신임 수장인 역사적 좌파인 파블로 고메즈(Pablo Gomez)가 마이크를 잡고 "페냐 니에토(Pena Nieto)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십억 페소의 자산을 불렀다"며 그의 가족 기업과 관련된 복잡한 연결고리에 대해 대통령의 아침 기자회견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길고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로페스 오브라도르(Lopez

이 가장 싫어하는 전직 대통령인 펠리페 칼데론과 비센테 폭스처럼 현 정부에 의해 끊임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치적 비판을 하는 등 기치를 당당히 내걸었던 다른 전임자 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페냐 니에토 전 대통령과 AMLO 현 대통령간의 정치적 협정이 맺어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임기는 5개월 남았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임자들을 비판했던 그는 어떤 형태의 다른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낳고 있다.

만약, 야권인 소칠 갈베스가 승

리한다면 그는 조용히 목장에서 은둔할 것이라는 추측과 자신의 후임자인 웨인바움이 승리할 경우 그는 상왕처럼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그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 정국에서 물밑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이미 자신의 후계자인 웨인바움과도 보이지 않은 알력이 표출되는 등 갈등 양상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부패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현 대통령이 전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국민투표'라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증거부족'으로 기소까지 하지는 못했다.

결국, (증거부족으로)명분이 없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요란한 정치적 제스처만 남긴채 시간은 흘러 현 대통령도 실권이 없어지게되는 전직 대통령이란 칭호를 받으며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는 현재 60대 대통령이었던 Carlos Salinas de Gortari를 비롯하여 Ernesto Zedillo Ponce de Leon, Vicente Fox Quesada, Felipe Calderon Hinojosa, Enrique Pena Nieto 등, 5명의 前대통령이 생존해 있으며 여기에 Andres Manuel Lopez Obrador 현 대통령이 합류하게 되면서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직 10명이 모여도 현직 1명의 권력에는 못 미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럼에도 현 대통령은 이전과는 결이 다른 개인적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어 동일선상에서 전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 대선 돌발변수, 사망한 사람도 유권자 명단에 버젓이..

오는 6월 2일에 실시되는 멕시코 대선과 총선에서 유권자 명단이 실제와 무려 47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혹해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INE)의 유권자 명단과 국가인구위원회(Conapo)에 등록된 18세 이상 인구 수 사이에는 47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UNAM 인구통계학자이자 연구원인 Hector Hernandez Bringas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도 여전히 유효한 투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수가 무려 470만명에 이른다.

에르난데스 브링가스는 엘 유니버설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상호 참조하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680만 명,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470만 명으로 투표 연령 인구보다 더 많다고 설명합니다.

국가인구위원회(Conapo)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의 멕시코인은 9,300만 423만 11명이다.

그러나 6월 2일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즉 INE(중앙선관위)의



명부에는 9800만 194,255명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에는 1억 209,205명이 등록되어 있다.

선관위가 사망자 명부의 정보를 주민등록부와 교차 확인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 470만명의 유효한 투표 자격은 지난 10년간 사망한 18세 이상 인구 약 700만 명 중 일부에 해당하며, 시민등록부와 INE가 정보를 교차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관위(INE)가 사망한 멕시코 시민의 수와 유효한 자격 증명을 대조하는 것은 시간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인구와 잠재적 유권자 사이의 격차에 대해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멕시코인은 선거인 명부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유권자 명단에도 올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적정 연령이 될 경우 국가인구위원회(Conapo)는 선거인 명부에 올리지만 중앙선관위(INE)는 실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를 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4년 2월 8일 현재 수치에 따르면, 1월 22일에 INE 등록이 마감, 확정되었지만 선거인 명부는 18세 이상의 멕시코인 9,750만 명이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실제 인구 9,340만 과는 470만 명 차이가 난다.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 명부보다 적은 인구 사이의 데이터 차이가 선거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투표 결과를 두고 논쟁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선거가 접전일 경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권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올 경우 민사 등록소가 연방 선거 관리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자격 증명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보가 멕시코시티 시민등록국과 각 주 및 INE 간에 항상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니며,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명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정확한 유권자 데이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1억이 넘는 인구지만 470만명의 유권자 차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치로 한국처럼 수백표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선거 전체가 무효선언이 될 수 있는 재앙이지만 멕시코는 의외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슈로 확장되지 않고 있다.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흥송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Tel.: (52 -55) 5566 8955, 5566 6456,






몬테레이 / 시티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취업비자 \$10,000	◆비자연장 \$5,000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국적변경 \$4,000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멕시코 2023년 118억 달러 군사비 지출

브뤼셀.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에 따르면 5년 전 멕시코 육군 소속으로 별도 창설된 국가 방위군에 2023년 멕시코 전체 국방 지출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에 할당된 예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 2019년에는 총 군사비 지출의 0.7%에 불과했었다.

멕시코는 2023년에 2014년보다 55% 증가한 11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이지만, 지난해 멕시코는 군사 부문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국가 목록에 올랐는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24번째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예산은 2014년의 GDP 0.5%보다 증가한 0.7%,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0.5%에 해당한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멕시코 보안군에 할당된 금액이 조직 범죄와의 전쟁에 군대를 사



용함으로써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국방 지출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마약조직 등 폭력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차출했는데 국방비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지출된 셈이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전체도 비슷한 사례로 작년에 군대에 147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2014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웃 아이티의 폭력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인 14%를 기록했다.

남미의 군사비 지출은 507억 달러로 2023년에도 전년과 거의 변

동이 없었지만, 최대 지출국인 브라질은 예산을 3.1% 늘렸다.

SIPRI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약속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입된 국가가 아님에도 브라질은 스스로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는 9년 연속으로 군대 및 군 장비 유지보수 분야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질적으로 작년의 증가율은 6.8%로 총 2조 4,40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는데 미국은 2023년 예산을 2.3% 증가한 9,160억

달러로 NATO 전체 군사비의 68%에 해당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와 무력 충돌중인 러시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090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국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2022년에 비해 6% 증가한 약 2,960억 달러를 이 항목에 배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중국의 국방비 증가는 주변국을 긴장시키면서 과급효과로 나타났는데 2023년에 나토 31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마침내 GDP의 2% 이상을 지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우크라이나는 전체 공공 지출의 58%에 해당하는 648억 달러로 51% 증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년보다 11% 증가한 502억 달러, 대만이 11% 증가한 166억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동의 중동 지역도 상승 추세다. 이스라엘은 2023년에 2014년보다 44%, 이란은 같은 기간 34%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선 선거 절차 시작된 이래 매일 79건의 살인 사건 발생

선거 절차가 시작된 202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 16,752명이 살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79명 꼴이다. 전문가들은 멕시코의 '실패한 보안 전략'이라고 비판한다.

선거 절차가 시작된 이래로 매일 평균 79명이 살해당하는 등 조직 범죄는 선출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가공안시스템(SESN) 사무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6,752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79명의 희생자가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사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미초아칸, 게레로 및 치아파스와 같은 곳에서 조직범죄가 선거 절차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과나후아토에서 1,698명의 고의적 살인 피해자가 등록되었으며 할리스코에서는 1,063명, 미초아칸과 게레로에서는 각각 982명, 치아파스에서는 429명이 살해 당한 것으로 국가공안시스템(SESN) 자료에 나타나 있다.

이번 멕시코 총선에서 폭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주요 후보자에 대해 당국의 보



안이 제공되고는 있지만 피해자는 투표소 직원, 선거 참관인, 실제로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까지 모두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프로그램 컨설턴트이자 공공 보안 전문가인 David Saucedo는 "피해자 수치가 지

방 정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살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카르텔이 피해자의 시신을 매장하면서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효 지배력이 갈수록 약화되면서 이제는 지역 강단들이 강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등,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방은 춘추 전국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어 일부 정치인은 지역 카르텔과 공존(?)하며 이들에게 세력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치권 각성, 어린이에 대한 정치적 빛, "이제 갚겠다"

멕시코에서는 0~6세 어린이 10명 중 1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시민단체가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선 기간동안 어린이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보살핌과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소녀와 소년 1,250만 명이 있으며, 10명 중 1명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130만 명은 만성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

500개 NGO로 구성된 유아기 협약(Pact for Early Childhood, PPI)에 따르면 정치권은 유아기 관련 부채가 크다고 한다. 대부분의 관련 수치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60%가 완전한 예방접종 일정을 갖고 있지 않다. 18%는 출생 증명서가 없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세 미만 어린이 32만 2천 명이 질병, 부상, 살인으로 사망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세 미만 어린이 3천 332명이 실종 신고됐는데, 그 중 1,083명이 아직 실종 상태다.

또한 살아서 태어난 아기 1,000명 중 13명은 1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1,000명당 14명의 소녀와 소년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 2016년부터 처음에는 40개의 NGO가 포함된 PPI는 매 연방선거에서 후보들이 0세부터 6세까지의 여아와 남아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유아기 협약에 서명하도록 추진해 왔다.

이번 주 월요일, Fuerza y Corazón por México 야권 동맹의 대선후보자 Xóchitl Gálvez, Let's Continue Making History의 여당 대선후보 Claudia Sheinbaum과 또 다른 야당후보인 Emecista Jorge Álvarez는 6월 2일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해당 인구 부문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유아기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한, PAN-PRI-PRD 동맹의 산티아고 타보아다(Santiago Taboada), Morena, PT, Verde Ecologista 연합의



Clara Brugada와 오렌지당 Salomón Chertorivski의 멕시코 시티 정부 수장 후보도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아기 조약(Early Childhood Pact)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공 공간의 가용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GO는 또한 주지사, 하원의원, 상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대중 선출직에 선출되기 위해 국립 선거연구소(INE)에 등록된 2만 명 이상의 후보자도 전자 페이지를 통해 협약에 서명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 서명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권이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어린이 보호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형식이다.

주요 내용은 12가지로,

-생후 6개월 미만 여아 및 남아의 첫 한 시간 내 모유 수유율을 75%로 늘린다.

-완전 모유 수유율을 50%로 늘린다.

-1세와 2세 소녀와 소년의 90%가 자격이 있는 모든 백신을 접종하도록 보장한다.

-신생아 중 최소 90%에게 신생아 선별검사를 적용한다.

-진단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장애가 있는 소녀와 소년을 위한 교육 및 보건 서비스 범위를 80%까지 늘린다.

-적절한 유아기 발달을 보이는 5세 미만 여아 및 남아의 수를 90%로 늘리고 연간 발달 평가 범위를 50%로 늘린다.

-3세 미만의 여아 및 남아 중 20%가 어떤 방식으로든 초기 교육을 받도록 보장한다.

-사랑스럽고 세심한 양육을 위한 양육 기술 프로그램을 통해 6세 미만의 여아 및 남아가 있는 가족의 30%에 도달하도록 한다.

-90%의 소녀와 소년이 1세가 되기 전에 시민 등록소에 등록되고 5세가 되면 모두 등록되도록 한다.

-폭력적인 징계 방법의 사용을 20% 줄이고, 6세 미만 소녀와 소년의 성폭력과 실종 사례를 50% 줄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한다.

-5세 미만의 딸과 아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에 어머니와 아버

지의 참여를 10% 늘리고 유아 놀이를 위한 공공 장소의 가용성, 접근성 및 질을 높인다. 등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에 따르면,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생애 첫 해에 소녀와 소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부분에서 멕시코는 상당히 뒤쳐져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에는 유아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들이 있는데 칠레와 콜롬비아가 대표적이다.

수십 년 동안 유아기를 우선시하고 공공 투자 금액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즉, 현재 멕시코 정책에는 매우 중요한 세대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사회 발전 자원의 상당 부분을 노인들에게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유아기에 투자하면 질병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낮아지고, 아동 발달 속도가 좋아진다. 결국, 장기적으로 유아기에 포괄적인 보호를 받은 소녀와 소년이 더 많은 학교 교육을 받고, 더 나은 IQ를 갖고, 수학과 읽기 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대

구글, 엔지니어링, 금융 멕시코로 이전계획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일부 엔지니어링 및 재무 역할을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멕시코 시티에 있는 Google의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 매체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구글은 엔지니어 핵심인력 중 최소 2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의 역할을 인도와 멕시코로 옮기는 것을 포함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다.

CNBC는 내부 문서를 인용하면서 개발자와 컴퓨터 엔지니어를 포함한 많은 핵심 팀이

멕시코와 인도에서 해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구글은 멕시코에 기반을 둔 6개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직책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중 4개는 멕시코 시티에 위치하며 2개는 원격근무로 이루어지게 된다.

Google의 멕시코 시티 본사는 Lomas de Chapultepec 인근의 445 Montes Urales에 위치해 있다. Google에 따르면 '7층짜리 활기 넘치는 건물'은 이미 '영업,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마케팅 등을 포함한 여러 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은 텅텅", "한쪽은 포화", 차기정부 속제로 남은 신공항, 구공항

멕시코시티에는 2개의 공항이 있다. 원래의 공항인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인 AICM과 이 공항의 포화로 신규 공항이 건설되었는데 시티를 벗어난 지역에 새로 만든 Felipe Angeles 국제공항이 이에 해당한다.

신공항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낡고 포화상태인 구공항의 많은 항공사와 승객이 신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멕시코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거리와 기반시설 미흡 때문이다.

시티내에 있는 구공항과는 달리 신공항은 시티에서 45km로 한참 떨어진, 공군이 사용하는 비행장 옆에 지어졌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AICM)의 운영을 줄이고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 신공항(AIFA)으로 승객 흐름을 늘리라는 대통령령에도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공항은 여전히 포화상태이고 신공항은 첫 3년 목표 달성에 한참 떨어진 상태다.

2022년 3월 운영을 시작한 AIFA(신공항)은 그해 90만명, 지난해 270만명의 승객을 수송했다

또한 AFAC(연방민간항공국)의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첫 2개월 동안 70만명의 여행객이 여행을 떠났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94.5% 증가한 수치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미흡하다.

이로써 올해 첫 두 달간 신공항은 멕시코 전체 공항순위에서 8위에 올랐으나 7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7위인 San Jos del Cabo 공항이 같은 기간동안 130만명의 승객을 수송했기 때문에 절반의 수치를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편, AICM(구공항)은 2024년 2



▲ AIFA(시 외곽에 있는 신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Felipe Angeles*

차 운항 축소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여객 수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730만 명으로 계속 국내 주요 공항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당 52~43편의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다.

이같은 수치도 정부의 축소지시에 따라 지난해 4,840만 명의 여행객을 수송했던 운행량을 2024년에는 4,60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Santamarina y Steta 회

사의 폭발적인 증가를 염두에 둔 차기 연방정부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 신공항을 현 구공항 승객을 완전히 흡수하는 동시에 구공항은 화물여객운송 공항으로 이원화 할 계획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신공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구공항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수년 후 매년 1억 3,500만 명의 승객이 멕시코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던 Texcoco 신공항 프로젝트(



▲ AICM(시티에 있는 구 공항) *Aeropuerto Internacional Benito Juarez*

사의 파트너이자 항공법 전문가인 Juan Carlos Machorro는 "2030년 말에 멕시코 벨리의 항공 승객 수요가 8,500만~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연구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항공기 승

현정부, 현 대통령이 취소했다)와는 달리 현재의 신공항은 구공항의 수요까지 완전히 대체할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미래에 공항 포화 상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

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우려가 사실일 경우 현재의 신공항은 수도 공항의 포화 상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해결책이었던 셈으로 차기 정부가 떠 안아야 할 숙제를 남겨둔 셈이다.

현재 두 공항을 모두 합쳐 최대 수용 인원은 8500만~1억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래, 신공항(AIFA)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 공항은 두 단계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첫 번째는 운영 첫 3년 동안 연간 2천만 명의 승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여객 터미널, 유도로, 플랫폼을 확장하여 연간 8천만 명의 승객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IFA의 첫 해 동안 연방정부가 예상한 수치는 시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과 운영 책임을 맡은 국방부가 내놓은 추정은 근거도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들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항공 전문가 카를로스 토레스는 6년 전 AICM(구공항)이 계속해서 중심이 되는 '공항 시스템' 유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정부는 귀를 닫았다"면서 공항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다직 부족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영은 구공항이 화물 전용 공항으로 탈바꿈 될때까지 현재의 텅빈 공항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70% 공정률을 보이던 텍스코코 신공항을 폐기 처분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각종 소송 등, 차기 행정부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게 될지 항공 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 올해들어 호황

멕시코의 농업 수출이 2024년 첫 두 달 동안 거의 9% 증가하여 기록적인 농업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부(SADER)는 멕시코 은행의 자료를 인용해 1월과 2월 농업 및 농공업 수출액이 90억 6천만 달러로 2023년 첫 두 달에 비해 8.85%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농업 수출 부문에서 멕시코 역대 최고의 기록이다.

농산물 수입은 2024년 첫 두 달 동안 2.3% 증가하여 75억 7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1~2월 농업 무역 흑자를 14억9000만 달러로 기록해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SADER(농업농촌개발부)는



흑자가 2023년 첫 두 달에 비해 60.9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인 것은 맥주인데 멕시코 맥주 수출액이 올해 첫 두 달 동안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2023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8%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전 세계 여러국가로 멕시코산 맥주 수출을 다변화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멕시코산 토마토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높았다.

SADER에 따르면, 올해 첫 두 달 동안 6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농산물 수출 품이 되었다.

1월과 2월 멕시코의 상위 5대 농업 수출품은 데킬라와 메스칼(6억 2100만 달러), 아보카도(5억9천4백만 달러), 신선한 딸기와 라즈베리(5억 3100만 달러)가 차지했다.

멕시코의 농업 및 농공업 수출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하지만, 지금은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로도 수출이 되고 있다.

한편, 가장 큰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농산물은 올해 첫 2개월 동안 초콜릿 및 카카오 함유 기타 제품의 수출이 연간 기준으로 71.7% 증가했으며 차, 커피, 예르바 마테 출하량은 64.5% 증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농산물은 오렌지 주스(62.4%), 구아바, 망고 및 망고스틴(48.6%), 포도 및 건포도(38%), 소고기(35.9%)가 뒤를 이었다.

90년 집권세력 제도혁명당(PRI), 몰락은 당원 탈퇴에서 뚜렷

지난 3년 동안 현 집권당인 모레나(Morena)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과거 90여년간 장기 집권해온 제도혁명당(PRI)은 당원 탈퇴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실제, 당원 가입에 모레나당은 180만 명의 새로운 당원을 확보하면서 당세가 크게 확장되었지만 PRI는 653,000명의 당원이 탈퇴를 하면서 심각한 당세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권 모레나당은 전국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된 반면, 주요 야 3당인 PRI와 PRD는 많은 수의 당원을 잃었고 심지어 PAN당은 등록 자체를 취소 당할 뻔 하기도 했다.

불과, 지난 3년 만에 국가재생운동(Morena) 정당은 대부분의 주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200만 명의 새로운 당원이 늘어나면서 창당 7년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되었다.

멕시코 중앙 선관위(INE)의 데



이터에 따르면, 모레나당은 200만 3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정치 집단으로 나타났다. 2020년 466,000명이었던 당원이 2023년 230만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도혁명당(PRI)은 지난 3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당원을 잃었다.

2020년에 삼색당(제도혁명당)은 200만 6천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653,272명의 당원을 잃어 140만 명의 등록 당원만 남아 당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정

당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민주혁명당(PRD)이 999,249명의 당원이 있지만 3년 동안 243,161명의 당원을 잃었으며 아스텍 태양 문양(PRD)은 불과 6년 만에 15개 주 이상에서 정당 등록이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멕시코 녹색당(PVEM)의 당원도 592,417명으로 2020년에 비해 68,457명이 감소했다.

반면, Movimiento Ciudadano(MC 시민운동당)는 2,270명이 추가되어 총 384,000명의 당원을 확보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한 때 대통령까지 배출했던 국민행동(PAN)당은 지난 3년 동안 25,525명이 증가한 277,665명의 유효 등록자를 확보해 다른 야당에 비해 당원이 늘어난 경우다.

멕시코는 중앙선관위(INE)가 요구하는 최소 당원가입자 수인 246,270명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실제 정당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고 있다.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며 재집권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우파를 표방하는 PRI(Partido Revolucionario Institucional 제도혁명당)의 부활은 현 정권의 실책이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기 시작할 때를 시작으로 이전의 '부패정권'이라는 오명을 씻어야만 가능성이 엿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간에 부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 6년간 미국 국경 넘다가 체포된 멕시코인 300만명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데이터에 따르면 현 정부의 임기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00만 35,515명의 멕시코 국민이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 구금되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때 같은 기간동안 100만 129,434명 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 임기 6년 동안 멕시코인의 미국 이민이 중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임 대통령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행정부에 비해 168.7% 증가했다.

현 정권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등록된 모든 건수는 303만5천515명으로, 멕시코시티 아즈테카 스타디움을 거의 4배 이상 채우는 수치이다.

미국 기관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2021 회계연도 동안 655,594명이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이웃 국가로 건너가려는 멕시코인의 이주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2020년 대비 120.2% 증가한 수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이주민 체포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에는 237,078명이 국경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2020년에는 297,711명, 2021년 655,594명, 2022년 808천339명, 2023년에는 71만 7천 33명에 달했고, 미국 회계연도인 2024년 현재까지 31만 9천 760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전 정부인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의 6년 임기 동안 멕시코 국민이 체포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3년 267,734명, 2014년 229,178명, 2015년 188,122명, 2016년 175,353명, 2017년 116,790명, 2018년 152,257명이



다. 이에 대해 전 이민청장 Tonatiuh Guillen Lopez는 "불법적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멕시코인들을 체포하는 수가 이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을 훨씬 초과했다"면서 "이제 멕시코는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가장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탈출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2020년에 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해부터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폭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기 시작한 것과 일치한다.

멕시코의 경우는 2020년부터 국내 지역의 폭력사태로 인해 마을을 떠나면서 가족 전체가 미국 이주민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

전직 연방 공무원은 2022년과 2023년의 멕시코 흐름이 두 가지 큰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노동 시장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폭력 및 불안 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번째 그룹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는 실향민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두 그룹은 멕시코인의 이동성이 매우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계에 따르면 페냐 니에토 정부의 마지막 3년 동안 이웃 국가

와의 국경에서 체포된 가족은 7,959명으로 기록되었으나,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그 수는 349,59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회계연도 2024년 현재까지 미국 이민국에서만 152,241명이 체포됐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갱단들간의 치열한 전쟁은 주민들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기엔 로페스(Guillen Lopez)전 이민청장도 "페냐 니에토(Pena Nieto) 정권 시절 국내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웃 국가로의 이주를 중단했지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대통령과 함께 팬데믹으로 인한 큰 위기와 또 다른 큰 위기가 있었다"면서 "갱단들로 인한 불안과 폭력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내무부 이민 정책 부서(Segob)

의 수치에 따르면 2022년에 미국에서 송환된 자국민은 총 258,000명에 달했고, 2023년에는 등록된 사람이 214,849명이었다.

이같은 수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중반 이후 발생한 멕시코인의 새로운 이주 물결은 주로 폭력과 불안 문제 때문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국가가 폭력과 불안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보안 문제 전문가인 David Saucedo는 "불법적으로 미국 땅에 입국하려는 멕시코 가족의 프로파일은 주로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민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 경제적 상황, 교육 및 고용 기회 부족, 사법 접근권 부족, 무엇보다도 범죄 집단의 압력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단점에 직면한 인구 집단으로 가장 큰 원인은 멕시코 카르텔 간의 전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의 지역을 살펴보면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미초아칸, 사카테카스, 소노라, 콜리마, 게레로, 치아파스 등 살인 폭력 발생률이 높은 주에서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특이한 사실은, 경제적 이유로 떠나는 이주민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곧바로 송금을 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마약 밀매나 폭력의 피해로 인해 난민이 된 가족의 경우는 국가를 떠날 때 완전히 철수하면서 고국과의 인연을 단절한다는 것이다.

즉,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와는 달리 폭력사태를 겪고 떠나는 경우 더 이상 고국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완전한 이주민이 되면서 멕시코 국가라는 존재를 잊고 싶어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대통령은 떠나기 전에 누구를 '용서'하고 싶은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López Obrador 현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사면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집권당인 모레나당은 연방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끝나기 2주 전에 이례적인 속도로 내일 상원 본회의에 통과될 사면법(Ley de Amnistía)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과는 확실시 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López Obrador) 대통령은 이미 두 가지 유형의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2020년 4월부터 낙태를 한 산모, 의사, 조산사, 경미한 보건의 범죄(마약),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이나 통역사를 제때 만나지 못해 구금을 당한 원주민에 대한 '사면권'이다.

2013년부터는 연방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사면할 수 있게 되었다.

집권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법은 멕시코 국가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실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어떤 단계에서든 형사 소송 중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면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집권당이 그렇게 신속하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사면은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현재 여러가지 경로로 흘러나오고 있는 특별 사면관련 대상자들이다.

1. 이스라엘 발라르타(Israel Vallarta) 납치사건

Felipe Calderon 대통령 집권기간에 발생한 Cassez-Vallarta 사건은 2005년 12월 미성년자를 포함해 3명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것은 프랑스 국적의 여성이 납치범죄에 주범으로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07년 멕시코 법원에서 기소되어 2008년 4월 25일



▲ 납치 주범으로 체포됐던 Florence Marie Louise Cassez(Caspez Crepin(사진 왼쪽)Vallarta, 체포 당시의 모습이다. 현 정부는 이 사건을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핵심인물로 칼데론 정부 당시 치안책임자였던 Genaro Garcia Luna를 지목하고 있다. 현재 그는 미국에서 마약깡단들과의 내통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 정부는 前정부의 대표적인 부패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다.

총 9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기는 나중에 60년으로 감형되었다.

2013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체포 당시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유죄나 무죄 판결없이 불법 구금으로 즉시 석방이 결정되었으며 당일자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 사건은 프랑스와 멕시코 간 외교문제로 비화했으며 석방에 대해서도 특혜를 베풀었다는 멕시코 언론의 비판이 상당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미국에서 마약 조직과 내통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前 연방 보안 장관 Genaro Garcia Luna와 당시 치안 관리가 설정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그를 사면함으로써 이전 정부의 불편한 진실을 과해치겠다는 현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Vallarta는 17년 동안 Altiplano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현행 법상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형사범을 사면할 수가 없어 집권당이 법적틀을 이번엔 마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속전속결로 법안 처리를 한 경우다.

대통령이 가장 혐오하는 두 사람, 즉 그를 체포하고 '함정'을 꾸

민 사람인 전 연방 보안 장관 Genaro Garcia Luna와 당시 관리가 Los Zodiaco 깡단 소속으로 알려진 Vallarta의 체포 사실을 홍보하는 데 동원된 언론인 카를로스 로레(Carlos Loret)에 대해 수감되어 있는 Vallarta가 당시의 진실을 폭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만약, 1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Vallarta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AMLO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사건 조작과 은폐 의혹에 대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는 셈이다.

Vallarta는 납치사건 외에도 6건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범은 사실상 사면이 어렵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사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다.

2. 후고 로페스-가텔(Hugo Lopez-Gatell) 전 보건부 차관



▲ Hugo Lopez-Gatell 前 보건부 차관은 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차관에 발탁되어 팬데믹 당시 모든 보건정책을 진두지휘하며 신임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곤경에 처했으며 현재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가족이 사망했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얽혀있어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해 이를 구제해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전략을 지휘한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형사 고발이 여러 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가족들이 고발주체다. 법무부는 이 고발건에 대해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지만 연방 판사들은 이 사건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Inegi(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그는 대유행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예상보다 801,000명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원이 내일 투표하기를 원하는 법은 연방 사법 시스템이 명령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는 것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법안이 가결되면 자동으로 이 사건은 사면으로 종결하게 된다.

이는 Lopez-Gatell 보건 차관은 물론, 보건부의 정책을 승인한 모든 보건위원회 구성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해준다는데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3. 아요치나파(Ayotzinapa)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현 대통령은 야당 대선후 보시절 '43명 교육대 피살사건'을 당시 정부에서 사건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이 집권하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말이 가까워진 지금도 사건은 명확한 해결을 하지 못한채 오히려 이전 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인해 공분을 사고 있다.

43명의 교육대생이 피살된 2018년 당시에는 현대통령이 야당 후보였기 때문에 아요치나파 사건과는 사실상 무관하다. 그러나, 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후보직에서 이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며 당시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을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틈해택(?)을 본 사건이다.

(관련기사 12면)

폭등하는 초콜릿의 글로벌 가격, 멕시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멕시코 방코 베이스(Banco Base)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가격 상승률이 61.3%로 가장 큰 상품은 코코아였으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계 코코아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코코아 선물 가격이 화요일에 일시적으로 톤당 미화 10,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2024년에 129% 이상 상승한 것이다.

화요일의 최종 가격은 결국 미화 9,641.50달러로 다소 하락했다.

농업 시장 컨설팅 그룹(Agricultural Markets Consulting Group)의 정보 이사인 Abel Main Rodriguez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농작물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곳이 전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한다.

엘니뇨와 검은꼬투리병을 일으



키는 난균류인 phytophthora palmivora는 이 두 국가에서 카카오 작물 부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가뭄으로 에콰도르, 카메룬,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다른 주요 생산국에서도 카카오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현지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립통계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멕시코 시장의

초콜릿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4.6%보다 높은 수치지만 평균 8% 상승했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전국소상인연맹(National Alliance of Small Merchants)의 쿠아우테목 리베라(Cuauhtemoc Rivera) 회장은 초콜릿 소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하반기에 초콜릿 가격이 두 배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7% 상승할 코코아와 설탕

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멕시코 시장에서 사탕 판매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는 얼마나 많은 코코아를 생산할까?

멕시코가 원산지인 카카오는 커피 다음으로 열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늘 작물 중 하나다.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약 45,000명의 멕시코 농부들이 주로 타바스코, 치아파스, 케레로주에서 카카오 콩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개발부(Sagarpa)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4년에 38,000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 멕시코는 전 세계 11대 생산국 중 하나다.

Main Rodriguez에 따르면 멕시코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약 43,000톤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로 보는 멕시코 대선/총선) 3. 다수당은 어느당이 차지할까?



▲ 상원의원 전체 128명 중에서 84명이 여당소속으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멕시코 총선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연합후보가 거의 1:1로 맞대결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여 시정시장과 주지사 선거, 의회 상, 하원, 및 지역시장 등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모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연합후보를 내세웠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



▲ 하원의원 전체 500명 중에서 330명이 여당소속으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선거일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당선으로 이어져 야당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상황이 그대로 투표로 이어진다면 개헌까지 염두에 둔 여당의 선거 전략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장기집권 플랜이 차기정부에서 실행될 전망이다.

11면에 이어..

집권하면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농촌 사범학교의 가족 및 학생들과의 관계는 당시 페냐 니에토 정부보다 더 나쁜 상태다.

이번 주말에 학생들은 대통령 선거 보이콧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집권당 대선후보인 Claudia Sheinbaum의 선거행사에 방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현 대통령이 사건수사를 모두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오히려, 현 정부는 사건 해결은커녕 의심스러운 증거 인멸과 고발로 사건을 엮히고 설키게 만들어 오염시켰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면법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제공한다면 몇몇 범죄자를 석방하고 다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법은 정부가 입증하지 못한 국가 범죄를 군인이 이를 맡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대통령의 '사면권' 권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 세 가지 사건 모두 현 멕시코 대통령 마음 속에 퍼즐을 맞춰온 사건들이다.

어떤 인물들, 어떤 형식으로 사면권을 발동하게 될지는 대통령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겠지만 '사법권의 무력화' 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한 단면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아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nd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Eligible Voters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Required Documents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